

치위생과 학생의 정서적 인식이 전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유지수[†] · 최수영¹

구미1대학 치위생과, ¹한남대학교 교육연구소

The Effects of Emotional Perception on Major Satisfaction among Students at the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Ji-Su Yu[†] and Su-Young Choi¹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Gumi College, Gumi 730-711, Korea

¹Educational Research Institute, Hannam University, Daejeon 306-791, Korea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measure such features of emotional responses perceived by students as learning climate, department living stress, and perceived helplessness to analyze their effects on major satisfaction among students at the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to do this, a survey was conducted with 431 students, regardless of college year, who were at the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in four colleges in Gyeonggi Province, Daejeon, and Chungcheong Province. An existing emotion scale which went through the generalization process was used to draw a multiple model in the combination form in order to collect emotional factors affecting college students' satisfaction with their major, which had existed as a hypothetical proposition, and make overall interpretation of relevance through the explainable, predictable modeling process by measuring emotional factors and phenomenal description of the level of general perception. The results showed that major satisfaction was very significantly affected by emotional features among students at the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which needs to be treated as an important factor to enhance expertise related to major learning and improve students' living.

Key words Canonical Correlation Analysis, Helplessness, Learning climate, Major satisfaction, Multifactor Regression Analysis, Stress

서 론

대학교육은 자아실현뿐만 아니라 전문 인력을 양성하여 유능한 인력을 사회에 배출하고, 학생들은 자신의 자질을 충분히 발휘하고 유능한 인력으로 성장하기 위한 전문지식을 습득할 기회를 얻는 것이 그 목적이다. 그러나 대학에 진학했다 하더라도 학생들은 자신이 속한 전공학과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고 그에 따라 상당수의 학생들이 입학 후에 전공학과에 대한 부적응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한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은 여러 보고서에 의해 조사된 바 있다¹⁾. 또한 대학의 학과 선택에 있어 자신의 적성을 고려하지 않고 성적에 맞추어 학과를 선택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이는 전공에 대한 불만과 학교 생활에 대한 부적응으로 학과를 중도 포기하는 양상과 관련지어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²⁾.

치위생 교육의 목적은 21세기에 대비한 전문직 치과위생사로서 사회가 요구하는 업무수행능력을 갖추고,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여 전문직업인으로서 사명감과 책임감을 소유한 구강보건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다³⁾. 치과위생사 교육기관은 능력 있는 전문치과위생사를 배출해야 할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해 전인교육을 동반하는 효과적인 치과위생사 교육이 필수적인 요건이며⁴⁾, 국민의 구강건강관리의 책임자로서 중요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이다. 치과위생사가 전문 인력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치위생과 교육기관은 양적인 팽창으로 늘어나는 치위생과 학생들을 효율적으로 지도하여 치과위생사의 업무 확대와 치위생학의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 치위생과 학생들은 재학 중에 전문지식 및 직업에 대한 프로정신과 자긍심은 물론 완성된 업무수행을 위한 자질과 인격 및 원만한 대인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하므로 학업에 대한 관심도와 학과에 대한 만족도의 비중이 무엇보다 크다고 할 수 있다⁵⁾. 전공만족은 전공에 대해 느끼는 주관적 경험을 의미하며

[†]Corresponding author

Tel: 011-9079-9903

Fax: 054-440-1179

E-mail: yjs9903@paran.com

개인이 속한 전공학과 내에서의 행동은 개인적 특성과 전공을 둘러싼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의해 형성된다고 할 수 있다. 대학생들은 학교가 자신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실망하고, 불만을 가지게 되고, 기대보다 좋은 경우에는 만족을 느끼게 된다. 이러한 만족도 수준은 학생들의 학교에 대한 자부심이나 긍지 등으로 나타나게 되며, 반대로 불만족이 클 경우에는 자퇴, 편입, 휴학 등으로 연결되게 된다. 따라서 대학생의 전공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절실한 노력이 필요하며, 전공만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해야 한다.

따라서 전공분야 만족도와 이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정서적 요인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학생들이 인식하고 있는 학습풍토와 학과 생활 스트레스 그리고 자각한 무기력감을 분석하여 치위생과 재학생들의 전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치위생과 학생들의 전공분야에 대한 만족요인별 인식 수준을 알아보고 무엇보다도 본 연구를 통해 학생들이 인식하고 있는 정서적 반응의 특성인 치위생과의 학습풍토, 학과 생활 스트레스, 자각한 무기력감을 측정하여 치위생과 재학생들의 전공만족도에 주는 영향력을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또한 이 연구를 통해 치위생과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전공분야, 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만족도와 해당 만족요인을 알 수 있을 것이며, 지역별, 학년별 편차가 존재하는지 분석하여 전공만족도를 높이는데 필요한 기초 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경기, 대전, 충청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4개의 대학 치위생과에 재학 중인 1학년과 2학년, 3학년 학생 500명을 대상으로 2010년 5월부터 7월 사이에 자기보고식 방식에 의한 설문 조사 방법으로 실시하였으며, 자료처리에 부적합한 69부를 제외한 431부를 자료 분석에 이용하였다.

2. 연구도구

연구에 사용된 도구는 다음과 같다. 전공만족도와 교육과정만족도는 김 등⁶⁾이 설계한 설문지를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학습풍토는 Moos⁷⁾에 의하여 개발된 지각된 학습풍토(Perceived classroom climate)의 측정도구인 학급환경 척도검사(classroom environment scale)를 대학생 수준에 맞추어 적절히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의 신뢰도는 Moos⁷⁾와 이⁸⁾가 재검사신뢰도를 제시하였고, 김⁹⁾에 의해 신뢰도가 .89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Cronbach α 는 .79로 나타났다. 자각된 무기력감은 학습된 무기력(Learned Helplessness)을 측정하기 위하여 신¹⁰⁾이 개발한 진단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를 김¹¹⁾이 연구를

통해 적용한 신뢰도는 .96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 α 는 .81이었다. 스트레스 반응척도는 스트레스 반응양상 척도(symptoms of stress. SOS)를 사용했다. 이 척도는 1977년 미국 워싱턴 대학교 간호대학의 스트레스 반응연구소에서 개발한 것으로, 이¹²⁾가 한국 실정에 맞게 번안하여 수정, 보완한 한국인의 스트레스 반응척도를 안¹³⁾이 재수정, 보완하여 사용한 것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Cronbach α 는 .81이었다.

3.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PASW Statistics 18.0을 사용하여 통계 처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학년별, 지역별로 치위생과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전공, 학과, 학교에 대한 만족도와 해당하는 인식수준들을 살펴보고자 기술통계량을 통해 분석하였다. 이어 전공만족도에 정서적 영향을 미치는 변수 군들의 하위요인들에 대하여 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나타난 유의한 영향변수들 중 정적 상관을 보이는 변수들은 그 하위요인들이 전공만족도에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어떠한지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부적 상관을 보이는 변수 군들은 해당 변수군 간의 정준 상관분석을 통해 유의미한 관계모형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1. 전공만족도의 일반적 특성

전공에 대한 만족 수준은 전반적으로 만족한다 이상이 74%로 나타났다. 만족 이상의 인식을 보이는 경우는 경기지역과 대전지역이 충청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1학년 학생들이 2, 3학년 학생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보통의 만족인식으로 보이는 경우가 약20% 정도로 나타났다. 학년별 만족 인식의 차이가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able 1).

2. 학과 및 학교 만족 요인에 대한 일반적 특성

학생들이 인식하고 있는 학교 및 학과에 대한 만족감을 느끼는 요인들은 무엇인지 살펴보면 무엇보다도 전공 교육 내용에 만족하는 비율이 다른 요인에 상대적으로 우선하여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상대적으로 학교의 시설이나 행정적 지원에는 관심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및 학과 만족 요인별로는 지역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able 2).

3. 정서적 인식 반응과 전공만족도의 상관관계

치위생과 학생들이 인식하고 있는 정서적 영향요인들과 전공만족도 간의 각 변수 유형별로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스트레스 반응과 자각한 무기력감은 각 유형별로 전공만족도에 대하여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인다. 학습풍토는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major satisfaction

Variable	Very satisfaction	Satisfaction	So so	Non-satisfaction	Very non-satisfaction	Total	χ^2	p-value	
Grade	1	26(15.9)	108(65.9)	22(13.4)	6(3.7)	2(1.2)	164(100)	21.10	0.007**
	2	5(4.9)	58(56.3)	31(30.1)	9(8.7)	0(0.0)	103(100)		
	3	23(14.0)	101(61.6)	30(18.3)	9(5.5)	1(0.6)	164(100)		
Area	Gyeonggi	28(15.3)	115(62.8)	31(16.9)	8(4.4)	1(0.5)	183(100)	6.98	0.539
	Daejeon	13(11.3)	75(65.2)	21(18.3)	5(4.3)	1(0.9)	115(100)		
	Chungcheong	13(9.8)	77(57.9)	31(23.3)	11(8.3)	1(0.8)	133(100)		
Total	54(12.5)	267(61.9)	83(19.3)	24(5.6)	3(0.7)	431(100)			

*p<.05, **p<.01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of school satisfaction

	Professor factor	Colleague factor	School facilities	Administration support	Education contents	Non-satisfaction	Total	χ^2	p-value		
Grade	1	19(11.6)	22(13.4)	4(2.4)	2(1.2)	54(32.9)	63(38.4)	164(100)	13.16	0.215	
	2	8(7.8)	13(12.6)	7(6.8)	4(3.9)	38(36.9)	33(32.0)				103(100)
	3	24(14.6)	30(18.3)	5(3.0)	3(1.8)	56(34.1)	46(28.0)				164(100)
Area	Gyeonggi	18(9.8)	33(18.0)	2(1.1)	0(0.0)	52(28.4)	78(42.6)	183(100)	59.77	0.001***	
	Daejeon	15(13.0)	13(11.3)	11(9.6)	5(4.3)	58(50.4)	13(11.3)				115(100)
	Chungcheong	18(13.5)	19(14.3)	3(2.3)	4(3.0)	38(28.6)	51(38.3)				133(100)
Total	51(11.8)	65(15.1)	16(3.7)	9(2.1)	148(34.3)	142(32.9)	431(100)				

*p<.05, **p<.01, ***p<.001

일부요인들에 대하여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이고 있으며, 학과(학교) 교육과정만족도는 높은 상관을 유의하게 보여 주고 있다. 상기 분석결과를 통하여 상관관계가 매우 높게 나온 요인 6개 요인, 스트레스반응-우울증상군, 책임감 결여에 의한 무기력감, 상호관계적 학습풍토, 자신감결여에 의한 무기력감, 체제 변화적 학습풍토, 통제력 결여에 의한 무기력감 등에 대하여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전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해 보기로 하였다. 아울러 전공만족도와 전형적인 부적상관을 보이는 스트레스 반응과 자각된 무기력감은 어떤 하위요인들이 복합적으로 반응하여 전공만족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정준상관분석을 통해 요인을 추출해 보고자 하였다(Table 3).

4. 전공만족도에 대한 결과

상관분석 결과 전공만족도에 영향이 가장 클 것으로 예측되는 6가지의 하위변수를 선정하여 전공만족도와의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독립변수 6개로 학생들의 전공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하는 모형에 대해 통계적 유의성 검정결과 스트레스 반응유형 우울증상, 책임감결여에 의한 무기력 증상은 단계검증법에 의할 때, 유의하지 않아 제외되었다. 그 외 변수인 상호관계적 학습풍토, 자신감결여에 의한 무기력, 체제 변화적 학습풍토, 통제력 결여에 의한 무기력이 포함된 회귀모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F 검정통계값은 21.786, 유의확률은 .000으로 모형에 포함된 독립변수는 유의수준 .05에서 전공만족도를 유의하게 설명하고 있다. 아울러 전공만족도 총 변화량(분산)의 17%

(수정결정계수 16%)가 모형에 포함된 독립변수에 의해 설명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개별 독립변수의 종속변수에 대한 기여도와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한 결과, 유의수준 .05에서 전공만족도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는 상호관계적 학습풍토($t=4.3$, $p=.000$), 자신감결여에 의한 무기력($t=-2.9$, $p=.004$), 체제변화적 학습풍토($t=2.6$, $p=.009$), 통제력 결여에 의한 무기력($t=-2.2$, $p=.030$)이다. 독립변수들의 상대적 기여도를 나타내는 표준화계수에 의하면 상호관계적 학습풍토, 체제변화적 학습풍토, 통제력 결여에 의한 무기력, 자신감결여에 의한 무기력의 순으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Table 4).

5. 스트레스 반응과 자각된 무기력감의 각 집단 간 상관관계

상관관계의 기준은 보통 .7 이상을 유의하게 본다. .7 이상의 유의한 관계를 보이는 요인들은 우울증상-자신감결여(.7412), 우울증상-부정적인지(.7372)로 나타났다. 보통의 관계를 보이는 집단유형은 불안증상군-자신감결여, 불안증상군-부정적인지, 정서적불안-자신감결여, 정서적불안-부정적인지의 순서로 관계강도가 나타났다(Table 5).

6. 정준상관함수(집단)의 통계적 유의성 및 정준상관계수

정준식의 계수는 .7 이상을 관계가 강한 것으로 본다. 집단함수1의 경우 정준상관계수(R_c)는 .783, 유의수준이

Table 3. Relational features of each sub-factor of emotional perception responses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I	A	1																								
II	B	-.224**	1																							
	C	-.208**	.663**	1																						
	D	-.176**	.614**	.656**	1																					
	E	-.125**	.466**	.646**	.476**	1																				
III	F	.244**	-.244**	-.198**	-.169**	-.039	1																			
	G	.279**	-.207**	-.151**	-.102*	-.074	.533**	1																		
	H	.311**	-.160**	-.118*	-.127**	-.031	.418**	.428**	1																	
	I	.052	.082	.090	.088	.044	.108*	.045	.143**	1																
	J	.054	.043	.006	.021	.039	.070	-.068	.109*	.470**	1															
	K	.284**	-.114*	-.160**	-.071	-.070	.460**	.368**	.310**	.197**	.059	1														
	L	.133**	.022	.014	-.029	.099*	.245**	.199**	.339**	.205**	.258**	.282**	1													
	M	-.082	.086	.062	.037	.060	-.020	.014	-.017	.052	.114*	.035	.471**	1												
	N	.265**	-.118*	-.025	-.058	.060	.341**	.321**	.450**	.145**	.067	.244**	.144**	-.043	1											
IV	O	-.254**	.741**	.572**	.528**	.457**	-.257**	-.270**	-.203**	.023	-.011	-.098*	-.019	.091	-.113*	1										
	P	-.215**	.737**	.566**	.533**	.411**	-.241**	-.230**	-.183**	.006	.008	-.097*	-.009	.074	-.107*	.852**	1									
	Q	-.114*	.317**	.359**	.183**	.327**	-.166**	-.228**	-.091	-.101*	-.087	-.076	-.047	-.067	-.051	.442**	.398**	1								
	R	-.210**	.177**	.171**	.150**	.250**	-.175**	-.165**	-.167**	-.060	-.072	-.089	-.148**	-.044	-.126**	.316**	.250**	.272**	1							
	S	-.119*	.300**	.300**	.281**	.422**	-.084	-.123*	-.084	.058	.136**	-.056	.035	-.043	-.033	.434**	.369**	.245**	.561**	1						
	T	-.179**	.314**	.233**	.130**	.226**	-.160**	-.208**	-.149**	-.092	-.119*	-.088	-.103*	.031	-.020	.487**	.331**	.483**	.452**	.292**	1					
	U	-.185**	.267**	.218**	.217**	.181**	-.121*	-.233**	-.077	.056	.040	.017	-.009	-.004	-.091	.320**	.279**	.319**	.216**	.205**	.307**	1				
V	V	.800**	-.110*	-.138**	-.100*	-.086	.140**	.166**	.274**	.047	.112*	.220**	.090	-.045	.238**	-.123*	-.072	-.030	-.171**	-.083	-.120*	-.110*	1			
	W	.799**	-.125**	-.144**	-.134**	-.104*	.089	.094	.251**	.018	.026	.182**	.104*	-.035	.229**	-.135**	-.116*	-.061	-.211**	-.072	-.163**	-.084	.666**	1		
	X	.626**	-.262**	-.180**	-.144**	-.069	.327**	.373**	.159**	.092	-.022	.264**	.032	-.093	.155**	-.289**	-.283**	-.213**	-.096*	-.089	-.191**	-.193**	.314**	.284**	1	
	Y	.768**	-.167**	-.153**	-.149**	-.092	.186**	.202**	.243**	.016	.059	.198**	.175**	-.071	.193**	-.204**	-.163**	-.053	-.164**	-.112*	-.082	-.155**	.443**	.467**	.340**	1

Emotional perception responses 1variable : A: major satisfaction,

Emotional perception responses 2variable : Stress (B: Depression group, C: anxiety group, D: emotional disturbance group, E:perceptual disorder group),

Emotional perception responses 3variable : Learning climate(F:participation, G:intimacy, H:teacher instruction, I:learning orientation, J:competition, K:order organization, L:rule, M:teacher control, N:innovation),

Emotional perception responses 4variable : Perceived helplessness(O:lack of self-confidence, P:negative perception, Q:passivity, R:lack of control, S: lack of continuity, T:lack of desire to show off, U:lack of responsibility),

Emotional perception responses 5variable : Satisfaction with college (department) curricula(V:satisfaction with the teaching staff, W:satisfaction with major education, X:satisfaction with learning environment, Y:satisfaction with subject evaluation).

Table 4. Multifactor regression analysis of major satisfaction

N=431

	Non-standardized coefficient		Standardized coefficient	t	sig	R ²
	B	SE	β			
Mutual relation learning climate	.29	.07	.23	4.3	.000	.12***
Inertia caused by lack of self-confidence	-.09	.03	-.14	-2.9	.004	.15***
System-changing learning climate	.16	.06	.13	2.6	.009	.16**
Inertia caused by lack of control	-.07	.03	-.10	-2.2	.030	.17**
(constant)	42.75	4.14		10.33	.000	

R²(adj. R²)=.17(.16), F=.21.786, p=.000

Table 5. Correlations between Set-1 and Set-2

Set-1 \ Set-2	Lack of self-confidence	Negative perception	Passivity	Lack of control	Lack of continuity	Lack of desire to show off	Lack of responsibility
Depression group	.7412	.7372	.3173	.1770	.3005	.3144	.2670
Anxiety group	.5716	.5663	.3586	.1705	.2995	.2331	.2177
Emotional disturbance group	.5278	.5331	.1828	.1504	.2807	.1301	.2175
Perceptual disorder group	.4572	.4113	.3266	.2504	.4216	.2259	.1808

Table 6. Test that remaining correlations are zero, canonical correlations

	Wilk's λ	x ²	df	sig	Rc(Rc ²)
(Group) Func1	.319	485.109	28.000	.000	.783(.613)
(Group) Func2	.823	82.411	18.000	.000	.350(.122)
(Group) Func3	.938	27.076	10.000	.003	.216(.046)
(Group) Func4	.984	6.841	4.000	.145	.127(.016)

.000(p<.05)로 가장 유의한 함수관계로 나타났다. 반면, 집단함수2-3은 유의한 수준을 나타내기는 하였으나 정준상관계수가 낮아 유의한 식으로 보기는 어렵다. 집단함수 4는 상관계수와 유의수준 모두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6).

7. 스트레스 반응 유형과 자각된 무기력 증상 간 집단함수1 결과

1차 분석결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낸 집단함수1(제 1정준함수)에 대한 정준상관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독립변수군과 종속변수군 사이의 상관의 정도를 나타내는 정준상관계수의 값은 .783으로서 스트레스 반응 증상과 자각된 무기력 증상은 매우 높은 정적인 상관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스트레스 반응 증상이 높은 학생일수록 높은 무기력 증상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으며, 높은 상관과 유의도를 보여준 집단함수1(제 1정준함수)에서 두 변수군의 선형결합에 의해 설명될 수 있는 공유 분산에 비율은 61.3%다(Rc²=.613).

정준중복지수는 산출된 정준 함수에 의해 해당 변수군과 상대 변수군의 분산이 어느 정도 설명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독립변수군인 스트레스 반응 증상 요인에서는 집단함수1(제 1정준함수)에 의해 독립변수군 분산의 59.9%, 종속변수군 분산의 36.7%가 설명되며, 종속 변수군인 자각된 무기력 증상 요인에서는 집단함수1(제 1정준함수)에 의해 종속변수군 분산의 36.7%, 독립변수군 분산의 22.5%가 설명된다. 즉, 집단함수1(제 1정준함수)에 기초할 때 스트레스 반응증상 요인이 자각된 무기력 증상 요인을 설명하는 정도의 36.7%이며 자각된 무기력 증상 요인이 스트레스 반응증상 요인을 설명하는 정도는 22.5%이다.

각 변수군에 포함되어 있는 개별 변수들과 정준함수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표준화 정준계수와 정준부하량은 개별 변수들의 해당 변수군에 대한 상대적 기여도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스트레스 반응증상 요인 중에서는 우울증상군 반응의 표준화정준계수가 -.811, 정준부하량은 -.983으로서 독립변수군에 가장 많은 기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각된 무기력 증상 요인 중에서는 자신감 결여에 따른 무기력 증상의 표준화정준계수가 -.557, 정준부하량은 -.964로서 종속변수군에 가장 많은 기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준교차부하량은 각 변수들의 상대 변수군에 대한 상대적 기여도를 의미한다. 스트레스 반응 증상 요인 중 우울 증상군 반응의 정준교차부하량이 -.769로서 종속변수군인 자각된 무기력증상과 가장 많은 관련성을 지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자각된 무기력증상 요인 중에서는 자신감 결여에 따른 무기력 자각의 정준교차부하량이 -.755, 부정적 인지에 따른 무기력감 자각의 정준교차부하량이 -

Table 7. Results of canonical correlation analysis for aggregate function 1 between stress response type and perceived inertia

	Cluster of independent variable				Cluster of dependent variable						
	X1	X2	X3	X4	Y1	Y2	Y3	Y4	Y5	Y6	Y7
Standardized canonical Coefficients	-.811	-.083	-.113	-.101	-.557	-.467	-.005	.069	-.059	.034	.057
Canonical loadings	-.983	-.761	-.713	-.586	-.964	-.954	-.435	-.255	-.438	-.398	-.354
Cross loadings	-.769	-.596	-.558	-.459	-.755	-.747	-.341	-.200	-.343	-.312	-.278
Proportion of variance (Explained by Its Own Can)	.599				.367						
Proportion of variance (Explained by opposite Can)	.367				.225						
$R_c(R_c^2) = .783(.613)$											

X1:Depression group, X2:anxiety group, X3:emotional disturbance group, X4:perceptual disorder group

Y1:lack of self-confidence, Y2:negative perception, Y3:passivity, Y4:lack of control, Y5:lack of continuity, Y6:lack of desire to show off, Y7:lack of responsibility

.747로서 독립변수군인 스트레스 반응유형과 각각 순차적으로 많은 관련성을 지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Table 7).

고 찰

본 연구의 목적은 치위생과 대학생들의 전공분야 만족도 증진 요인을 탐색할 목적으로 수행하였다. 이를 위하여 경기, 대전, 충청지역의 치위생과 재학생들을 무선 표집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전공분야 만족도와 이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정서적 요인들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활용하여 조사,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치위생과 재학생들의 주관적 인식 수준을 기술하고, 이들 사이의 관계여부를 설명할 수 있는지 탐색하고자 하였다. 전공분야의 만족도 요인은 교수자, 동료관계, 학교시설, 행정지원, 전공교육의 질 등을 살펴 전체 통계값을 추출하였고, 독립 변수 군으로 정서적 요인들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학습풍토, 스트레스, 자각된 무기력감 등으로 범주화한 후, 각 하위요인들을 설정하여 다변수 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관계 분석은 정적인 상관을 보인 요인들은 전공만족도에 대하여 직접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중다회귀분석을 통해 영향력을 검증해 보았고, 부적상관을 보인 요인들은 두 개의 변수 군으로 묶어 각 하위요인별 관계와 관계의 수준을 정준상관분석에 의해 살펴보았다. 이 분석 과정을 통해 치위생과 학생들의 전공만족도에 부적 상관관계를 보인 서로 다른 두 요인군(群)사이의 관계성과 관계강도를 구체적으로 탐색할 수 있었다. 즉, 스트레스 반응과 정서적 무기력감은 각각 전공만족도에 부적 관계성을 가지고 있으며, 전공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두 변수군의 하위요인 간 조합과 상대적인 설명력을 예측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기존의 일반화 과정을 거친 정서적 측정도구를 활용하되 이들을 종합한 다중 복합모형을 추출함으로써 기존 치위생과 학생들의 전공만족도와 관련한 단선연구모형과 차별화를 꾀하였다. 무엇보다도 가설적 명제로서만 존재하던 대학생들

의 전공분야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정서적 요인들을 모아 일반적인 인식수준에 대한 현상적 기술과 정서적 요인의 측정을 통해 설명력있는 예측 가능한 모형화 과정을 거쳐 관련여부를 종합적 해석해 보았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닌다.

대학의 전문화된 교육은 개인의 선택이라는 속성을 지닌다¹⁴⁾. 이는 학과의 경쟁력과 만족도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갖는다¹⁵⁾.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사회적 가치로서의 전문인력 육성에 있다¹⁶⁾. 본 연구는 이러한 가치들의 근거에 작용하는 전문직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요소로 기초기본 학력으로 보았고, 이는 임¹⁷⁾의 연구에 따르면 이후 직업인으로서의 의식수준에도 영향을 준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재학생의 입장에서 전공에 대한 만족감은 이러한 기본적인 전제들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도구로서 충분히 측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였다. 이를 위해 전공만족도의 요인을 교수자, 동료관계, 학교시설, 행정지원, 전공교육의 질 등의 요인으로 살펴 전체 통계값을 추출한 후 종속 변수군으로 사용하였다.

이는 교육만족도를 구조적으로 요인화하여 분석한 김과 고¹⁸⁾의 연구에서 나타난 교육만족도의 각 하위요인들과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조¹⁹⁾의 연구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학생들의 주관성을 드러낼 수 있는 인식수준으로서의 만족도를 추출하고자, 이들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사전조사를 무선으로 실시하여 학생들이 주관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요인들만을 선정하여 측정요인으로 설정하였다.

아울러, 정서적 변인들에 의해 설명된 전공만족도 연구들을 탐색한 결과 종합적으로 영향력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김²⁰⁾의 연구는 심리적 변인들을 측정하였으나 유형화한 생활양식을 집단화하여 진단 간 차이점을 검증하였고, 임과 우²¹⁾의 경우 특정한 현상에 대한 스트레스 반응을 설명하고 있었다. 또한 김과 김²²⁾의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을 직무만족도와 연결하여 기술하고 있다. 일부이나 이들 연구들을 통해 살펴볼 때 단편적인

심리적, 정서적 반응 요인을 특정 현상에 입각하여 기술한 바는 여러 건 찾을 수 있었으나 이들에 대한 종합적인 영향력을 설명한 연구들은 찾아 볼 수 없었다.

반면 현재 초중등 교육과정 에 대한 교육력 연구에 있어 정서적 변인 연구는 다수 확인할 수 있었다. 김²³⁾, 서²⁴⁾, 배²⁵⁾ 등이 대표적인 연구인데, 이들 연구의 결과 일반화된 결과를 바탕으로 정서적 변인 군을 추출하였다. 이들 측정도구들을 예비조사를 통해 신뢰도 검정과 요인분석을 통해 치위생과 학생들에게 적합하도록 수정 보완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치위생과 학생들의 정서적 요인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학습풍토, 스트레스, 자각된 무기력감 등의 변수 군으로 범주화 한 후, 각 하위요인들을 설정하여 기존에 설정한 종속 변수 군에 대응하여 다 변수 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전공에 대한 학습능력과 지속적인 자기연찬 의지는 전문가로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핵심조건이다. 본 연구는 이들 핵심조건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서 전공에 대한 정서적 반응을 가정하였다. 즉, 학생들이 인식하고 있는 정서적 반응 특성인 치위생과의 학습풍토, 학과 생활 스트레스, 자각된 무기력감을 측정하여 치위생과 재학생들의 전공만족도에 주는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접근방식은 기존의 가설적 명제로 존재하던 전공분야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정서적 요인들에 대하여 실증적인 분석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차별성과 의의를 지닌다.

본 연구는 기존의 일반화 과정을 거친 정서적 측정도구를 활용하되 이들을 종합한 다중 복합모형을 추출함으로써 가설적 명제로서만 존재하던 대학생들의 전공분야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정서적 요인들을 모아 일반적인 인식수준에 대한 현상적 기술과 정서적 요인의 측정을 통해 설명력 있는 예측 가능한 모형화 과정을 거쳐 관련여부를 종합적 해석하였다.

따라서 치위생과 재학생들의 전공만족도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학생들 간의 상호관계성을 참여도, 친밀도, 멘토 지지를 통해 증진시키고, 체제 변화적 학습풍토 즉, 학생들 간에 활동과 지적 과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더욱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는 분위기를 창출할 때 전공만족도가 증진될 것이라 예측된다. 이와 함께 학과 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자신감 결여와 통제력 결여는 무기력감을 느끼게 하면서 만족도를 저하시킬 것으로 예측되므로 이를 예방할 수 있는 학교 및 학과 차원의 방안이 조치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학생들의 정서적 인식특성을 이해하고 전문성 향상을 위한 동기유발 기제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학과 생활에 의해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우울감에 대응할 수 있는 정서적 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통해 자신감이 상실을 예방하고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인지능력을 길러 주어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요 약

본 연구는 학생들이 인식하고 있는 정서적 반응 특성인 치위생과의 학습풍토, 학과 생활 스트레스, 자각된 무기력감을 측정하여 치위생과 재학생들의 전공만족도에 주는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해 경기, 대전, 충청지역에 소재하는 4개의 대학 치위생과에 재학 중인 1학년과 2학년, 3학년 학생 43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치위생과 재학생들은 전공 분야에 대하여 대부분 만족한다(74.0%)고 응답하였다. 1학년 학생들이 타 학년에 비해 만족한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p<.01$). 이는 신입생들의 전공 선택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을 것이라는 점을 예측할 수 있다.
2. 전공 분야에 대해 만족하고 있는 구체적인 요인들을 살펴본 결과 전공교육내용(34.3%), 동료학생 및 면학 분위기(15.1%), 교수자(11.8%)의 순서로 지역별 유의한 차이($p<.001$)가 나타났다.
3. 정서적 특성요인을 측정하기 위해 설정한 전공 학생들 간의 학습풍토, 학과생활 스트레스 자각된 무기력감은 전공만족도에 대하여 유의한 부적상관을 보였으며, 학습풍토는 일부 요인에 대하여 유의한 정적상관을 보였다. 교육과정만족도는 전공만족도와 매우 높은 상관($r>.7$)을 보였으며, 이는 이후 분석과정에서 제외시켜 다중공선성을 제거하였다.
4. 전공만족도에 대한 정서적 반응 요인의 중다회귀분석 결과, F 검정통계값은 21.786, 유의확률은 .000으로 모형에 포함된 독립변수는 유의수준 .05에서 상호관계적 학습풍토($t=4.3$, $p=.000$), 자신감결여에 의한 무기력($t=-2.9$, $p=.004$), 체제변화적 학습풍토($t=2.6$, $p=.009$), 통제력 결여에 의한 무기력($t=-2.2$, $p=.030$)의 순서로 전공만족도를 유의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전공만족도에 부적상관을 보인 학과생활 스트레스 요인과 자각된 무기력감 사이의 다중요인 간 상관을 알아보기 위해 실시한 정준상관분석 결과, 두 요인 집단 간 매우 높은 정적인 상관(.783)을 나타났다. 따라서 스트레스 반응 증상이 높은 학생일수록 높은 무기력 증상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6. 스트레스 반응증상 요인 중에서는 우울증상군 반응(표준화정준계수 -.811, 정준부하량은-.983)이 가장 많은 기여를 하며, 자각된 무기력 증상 요인 중에서는 자신감 결여에 따른 무기력 증상(표준화정준계수 -.557, 정준부하량 -.964)이 가장 많은 기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 스트레스 반응증상 요인 중에서는 우울 증상군 반응(정준교차부하량 -.769)이 자각된 무기력감과 가장 많은 관련성을 지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자각된

무기력증상 요인 중에서는 자신감 결여에 따른 무기력감(정준교차부하량 -.755), 부정적 인지에 따른 무기력감(정준교차부하량 -.747)로서 스트레스 반응유형과 각각 순차적으로 많은 관련성을 지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론적으로 치위생과 재학생들의 전공만족도는 정서적 특성에 매우 유의하게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전공 학습에 따른 전문성 향상과 더불어 학생들의 생활증진을 위한 주요 요인으로 다루어져야 할 것이라 사료된다.

참고문헌

1. 하혜숙: 대학생의 학과(학부)만족과 학교만족에 관한 연구[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서울, 2000.
2. 임용수: 전공만족도를 중심으로 본 대학생들의 진로사회화과정에 대한 조사연구. 경희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논문집 8(7): 107-129, 1993.
3. 이선미, 김송전, 한수진: 치위생과 학생들의 직업관에 관한 연구. 한국치위생과학회지 5(4): 239-244, 2005.
4. 장계원, 치위생교육에 대한 일부 치위생학생들의 태도조사. 진주간호보건전문대학논문집 17(2): 45-64, 1994.
5. 송윤신 외: K대학 치위생과 재학생의 학과만족도 조사 연구. 경북논총, 297-316, 2003.
6. 김송숙, 고은경: 치위생과 학생들의 교육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치위생과학회지 6(2): 139-145, 2006.
7. Moos. RH: The social climate scale: An overview. palo alto. calif. consulting psychologists press. 1974.
8. 이원보: 학급의 지각환경이 아동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석사학위논문]. 송전대학교 대학원, 서울, 1983.
9. 김선혜: 학급풍토지각과 자아개념. 진로선택 태도와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서울, 1999.
10. 신기명: 학습된 무력감 진단척도의 개발에 관한 연구[박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대학원. 서울, 1990.
11. 김해경: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아개념이 학습된 무기력에 미치는 영향[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서울, 2005.
12. 이소우: 한국인의 스트레스 반응양상: 미국이민 한국인을 대상으로. 대한간호학회지 22(2): 238-247, 1991.
13. 안은숙: 여대생의 신체상 지각과 스트레스 반응과의 관계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서울, 2004.
14. 원영순, 정미희: 치위생과 학생들의 입학동기에 따른 전공만족도 조사. 한국치위생과학회지 4(2): 85-90, 2004.
15. 송윤신 외: K대학 치위생과 재학생의 학과만족도 조사연구. 경북논총. 7: 297-316, 2003.
16. 이향님, 심형순: 일부 치위생과 학생들의 직업가치관. 한국치위생과학회지 7(2): 107-112, 2007.
17. 임미희: 치위생과 신입생들의 전공 및 직업의식에 관한 연구. 한국치위생과학회지 6(4): 277-284, 2006.
18. 김송숙, 고은경: 치위생과 학생들의 교육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치위생과학회지 6(2): 139-145, 2006.
19. 조영식 : 학사치위생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비교연구. 한국치위생과학회지 5(4): 251-258, 2005.
20. 김희정: 치기공과 학생의 대학생활 만족도 및 전공만족도와 생활양식 유형과의 관계. 대한치과기공학회지 31(3): 87-103, 2009.
21. 임순연, 우희선: 완벽주의가 스케일링 실습 시 실습불안과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치위생과학회지 9(2): 161-167, 2009.
22. 김경미, 김창희 : 치과종사자들의 직무만족도와 자아존중감에 관한 연구. 한국치위생과학회지 3(2): 71-76, 2003.
23. 김민희: 중학생이 지각한 학급풍토와 학습된 무기력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서울, 2007.
24. 서유라: 중학생의 신체활동 수준에 따른 학습된 무기력과 자기인식[석사학위논문]. 인하대학교. 인천, 2009.
25. 배정희: 인간관계, 학습자 및 동기적 변인들이 학습된 무기력에 미치는 효과[석사학위논문]. 강원대학교 대학원. 춘천, 2008.

(Received August 30, 2010; Revised October 8, 2010;
Accepted October 12, 2010)

